

○ 金陵에서 塔像調査

秦弘燮, 姜仁求 兩氏는 三月三十日, 三十一日 兩日에 걸쳐 金陵教育廳의 申告에 依하여 金陵郡 禦侮面 玉溪里 俗稱 미륵당의 石佛立像, 開字面 東部洞의 石佛坐像과 同面西部洞의 石塔을 調査하였다. (資料參照)

○ 梨大 安東·青松地區調査

梨大의 咸洪根, 秦弘燮, 兩教授는 지난 四月五日부터 七日에 걸쳐 安東, 青松地區를 踏查하였던 바 安東에서는 鶴駕山 磨崖佛, 青松에서는 金銅 및 青銅製의 佛像 七軀를 비롯한 香爐等 一插遺物이 調査되었다. 이 遺物은 青松郡 府東面上宜洞 大典寺 境內 廢墟에서 發見되었는데 이 절에는 매우 優秀한 彫刻이 있는 石塔 破材가 있었다.

○ 慶州에서 石塔材發見

慶州市 排盤里 李達慶氏 所有畚에서 農地整理 作業中 이 미 一部 露出되었던 石塔材가 多數 나타났다. 그中에는 基壇 甲石, 塔身石, 屋蓋石等 七片과 石燈 蓋石이 包含되어 있다.

○ 慶州에서 遺蹟 露出

慶州市 龍江里 農事敎導所 뒷 산에서 古墳 一基가 封土의 採取로 露出되어 一部 盜掘者의 손이 미친 痕蹟이 未然에 發見되었다. 이 古蹟은 石室墳으로 南面의 美道의 一部가 開放되어 玄室內의 出入이 可能할 程度이다.

한편 慶州市 仁旺里 鷄林中學校 新築敷地에서 工事中 長約 十八m에 達하는 地下遺構의 一部가 나타났으나 그 性格이 直時 究明되지 못하였다.

이들 遺蹟은 直時 調査되지 않으면 盜掘 或은 破壞의 憂慮가 있을 것으로 時急한 發掘이 期待된다.

○ 國博 東萊貝塚發掘

國立博物館 考古課에서는 지난 三月二十四일부터 四月三日까지 十一日間 釜

山市 東萊區 樂民洞 慶南林業養苗場區內의 貝塚을 發掘調査하였다. 今次發掘은 昨年度(七月) 發掘事業의 繼續이었는데 土器片과 骨針等 多數의 遺物外에 鹿角 刀子와 黑塗片이 出土되어 注目を 끌고 있다.

新羅三山學術調査團 第一次調査 (慶州狼山地區豫備調査)

新羅三山學術調査團에서는 慶州狼山地區의 本格的인 學術調査를 計劃하기爲 하여 지난 四月十二일부터 十五日까지 이곳의 豫備調査를 實施하였는 바 그內容은 다음과 같다.

一, 參加委員·金英夏, 鄭永鎬, 秦弘燮, 洪思俊, 黃壽永 以外에 한국일보社의 萬庸海論說委員, 劉榮鍾文化部長, 禹炳益慶州駐在記者가 參加하였고 現地에서 崔南柱, 昔庸澁, 兩氏가 同行하였었다.

二, 調査內容·狼山西北麓塚塔址(石造仁王像, 石塔材)——狼山北中腹寺址——立春堂(建物과 立春堂移建記)——皇福寺址(三層石塔, 十二支石(埋沒), 建物址, 石龜跌二座, 建物址, 石井址)——峰仙谷寺址(石塔材)——善德女王陵——石塔材——四天王寺址(木塔址, 金堂址, 石龜跌二座)——神文王陵(石床의 方位, 護石)——望德寺址(木塔址, 金堂址의 諸礎石, 中門階段址 幢竿支柱)——拜盤里出土石塔材(三基分과 石燈材)——陵谷建物址——現善德寺(石塔材, 立佛下臺石 磨崖三尊佛, 佛像臺座(上, 中, 下臺石), 石佛立像)——讀書堂——木塔址(狼山西麓) 以外에 도 昌林寺址와 南洞寺址를 비롯한 南山西北麓의 諸遺蹟을 調査하였다.

——第九卷 第五號 通卷九十四號——

保華閣所藏의 「李信園寫生帖」

全 暎 雨

年末 繼續되고 있는 保華閣 收藏品의 整理作業中 動亂時 疎開에서 漏

落된 것으로 생각되는 信園 李義養의 畫帖 一권이 보이어 여기에 簡單히 紹介하고자 한다.

本 畫帖은 表紙에 「李信園寫生帖」이라 董誥가 題하고 遼東、對馬等處라고 註하고 있으며 畫帖 末尾에는 「壬申春中信園李義養寫」라 落款되고 第二十面에는 「信園」두 字의 方形朱印이 보인다. 畫帖의 크기는 縱橫이 各 各 三七×三八 cm、畫面은 二六·五×三一·五 cm 로서 總二十四面에 鳳山 遼東白塔 塔山日出 姜女廟 威遠臺 祖大壽牌樓 山海關 望海亭 夷齋 廟 北鎮廟 桃花洞 盤山 撫寧縣 歐血臺 薊門煙樹 極樂世界 太學 五龍亭 海淀 西域鞦韆 回國使臣 暹羅國使臣 對馬馬水程 佐浦浦 西浦 對馬島 府中의 順序로 모두 二十六圖를 收錄하고 있다.

以上 繪圖한 內容으로 미루어 보아 이는 일찌기 信園이 中國과 日本에 使行의 畫員으로 隨行하여 該處의 名勝 遺蹟 絕景 異物 等を 지날 때 마다 隨時로 擧筆 寫生한 것을 모아 函卷의 畫帖으로 꾸민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같이 中國이나 日本에 使行時 畫員의 參加는 數많은 使行錄에서 보이고 있다. ① 이에 따르는 隨行 畫員의 作品은 意外로 傳世함이 殆無한 現今에 本 畫帖에 실린 內容은 歷史的 資料로서의 觀點에서 나 記錄畫의 作品으로서의 면에서나 자못 興味로운 일이라 하겠다.

本 畫帖은 李義養(英祖四十四年 戊子生 一七六八 A·D)의 活動年 代와 帖末尾에 「壬申春……」이라는 落款으로 미루어 볼 때 이는 信園이 純祖十二年壬申(一八一二 A·D)以前에 燕行使와 對馬通信使에 隨行하여 記錄寫生한 作品들로 이루어진 것이라 생각된다. ②

紙本淡彩로 된 本 畫帖은 每 畫面마다 上右肩에 그곳의 地名 및 遺蹟의 名稱을 端正한 行書體로 畫題하고 있으며 그 形勢를 緻密하고 一目瞭然하게 繪圖하고 있는 바 여기에 그 內容을 畫面의 順序대로 大略 살피보면 다음과 같다.

「鳳凰山」圖

畫面 右側에는 險阻한 斷崖의 높은 산봉우리가 둘러서 있고 건너편에는 이와 對比되는 野山이 바라보이며 탁터진 들관에 마을이 내려다 보이고 山 아래에는 커다란 버드나무 사이로 큰 規模의 建物들이 보이는 바

洪大容의 湛軒燕行雜記③에 「自柵門至鳳凰城三十里 鳳凰山在其間……云云」한 것으로 보면 이것이 바로 「柵門」으로 보여진다. 또한 湛軒은 鳳凰山을 우리나라의 道峰、金剛山에 견주었고 金昌業의 稼齋燕行日記④에는 이 山을 우리나라의 水落山에 比喩하고 있으며 또「……而峯如插筆」이라 表現하고 있는 바 本 畫面에도 그 날카로운 山峯의 表現이 매우 恰似하다 하겠다.

「遼東白塔」圖

이는 遼陽 廣祐寺의 白塔으로 보여지는 바 畫面 中央에 八角十三層의 典型的인 遼塔을 繪圖하고 있다. 三段의 基壇위 初層에는 面面에 佛龕을 올리고 佛像을 安置하고 있다. (實際로는 座佛이나 畫面에는 立佛로 表現되고 있다) 各層의 처마끝마다 風鐸을 달고 있으며 높고 完全한 相輪을 보이고 있는 바 이는 稼齋燕行日記의 「至白塔 凡八面而高十三層 下臺亦三層 高不可測 層皆有簷 簷皆懸鐸 上設相輪 面面皆刻佛像……云云」한 것과 相通한다. 塔前 兩便에 鍾樓와 鼓樓가 보이고 옆에는 碑碣과 小塔이 보이는 바 이 또한「……前有重修碑 即正德年所立也……云云」하는 稼齋의 記錄과 一致한다.

「塔山日出」圖

塔山頂上에서 東쪽의 靑히 트인 平野를 굽어보아 멀리 靑안 산마루에 붉은 해가 막 떠오르는 情景을 그린 것으로 畫面 右下에는 이른 아침의 조용한 마을이 내려다 보인다. 마을 뒷산에는 煙臺로 보이는 石臺가 멀리 밀어서 내려다 보이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視點이 꽤나 높았음을 알 수 있다. 멀리 日出을 둘러싸고 있는 空間에 軟紅色으로 淡朴하게 暈圍를 表現하고 있어 더욱 印象의 인 霧圍氣를 피하고 있다. 稼齋는 이 光景을「忽有一條氣 橫隔日中 遂成兩日 光芒相盪 誠奇觀也」라고 描寫하고 있는 바 當時 塔山의 日出은 壯觀으로서 硯이나 有名했던 것이 아닌가 한다.

「姜女廟」圖

이는 秦時 殉節의 傳說을 남긴 許孟姜의 祠堂으로 貞女廟로도 불리우며 山海關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位置한다. 稼齋燕行日記에는 이를



「조금 높은 둔덕 위에 臺를 쌓고 앞면에 各各 石階와 欄干을 設했으며 臺上에 廟와 佛殿이 있어 塑像을 두었으며 그 뒤에 一層 岩石이 있는 바 여기에는 貞女の 足跡이 있으며 後面에는 小亭이 있다」고 적고 있는 바 본 畫面에 繪圖한 內容과 매우 닮았다.

「威遠臺」圖

이나 그 位置는 不明하다. 높은 城위에는 小路를 두고 二重의 城門을 設하고 周圍에는 防禦用의 人造湖가 보인다. 城體의 輪廓만은 界尺으로 細密하게 描寫하고 있다.

「祖大壽牌樓」圖

寧遠城에 位置한다. 四層의 精巧한 牌樓로서 各層의 처마끝에는 風鐸을 달아 보이고 石柱 兩側에는 네雙의 石獅子를 各各 앞하고 있다. 畫面에 있어서 樓閣의 處理는 正面에서 바로본 界尺을 使用한 至極히 平面的인 技法을 보이나 樓下의 石獅子만은 아주 自由스러운 筆法으로 表現하고 있다.

「山海關」圖

天下第一의 關이라 일컫는 山海關의 全景이 畫面에 綿密히 描寫되고 있다. 二層의 外門과 三層의 內門은 瓮城으로 둘러쌓여 있고 城內의 市街가 整然하게 늘어져 있다. 市街中心의 十字路에는 鍾樓로 보이는 二

層의 樓閣이 높이 서있고 畫面 左下의 城밖에는 작은 마을이 보인다. 稼齋는 山海關을 말하여 「……遂入關門有兩重門皆有樓而內外門各有濠及瓮城外門樓二簷內門樓三簷極其雄壯」이라 表現하고 있는 바 畫面과 大差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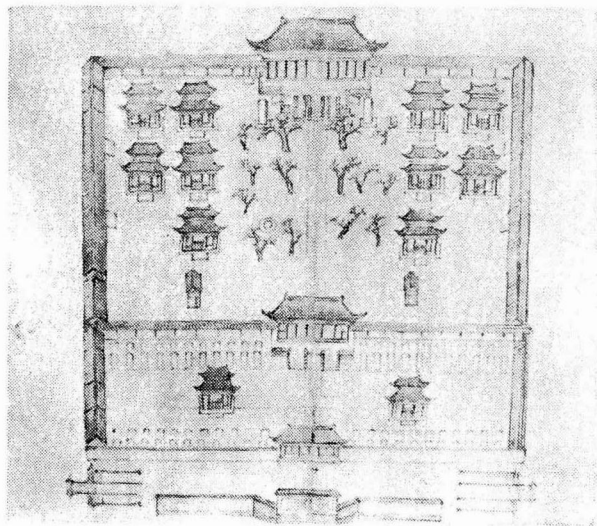
「望海亭」圖

山海關 南쪽에 位置하는 望海亭은 萬里長城의 끝으로 渤海에 面하고 있다. (湛軒燕行雜記三燕行錄選集 P. 三〇〇 參照)

畫面 中央에 城廓으로 둘러쌓인 臺위에 石梯를 올라가면 한 碑閣이 보이고 그 앞에 또 하나의 높은 築臺에 무지개門을 만들어 階下에 바다와 面한 臺의 末端으로 通하게 繪圖하고 있는 바 이는 稼齋의 「……由前庭出虹門下石梯梯下有碑閣……自此臺石作臺臺上穿二穴下通于海……過此又出虹門下石梯梯下築臺一如上臺……」라는 記錄과 恰似하다.

「表齋廟」圖

畫面 中央에는 石甃小城으로 둘러쌓인 廟의 構造가 한 눈에 바라다 보이며 뒤에는 平遠한 山勢 아래 江(溟河)이 굽이쳐 흐르고 두雙의 帆船이 閑暇롭게 떠돌고 있다. 城邊 左側에는 서너그루의 老松이 흥겹게 벌러 있고 前面에는 城門 둘이 나란히 보인다. 廟入口에는 牌樓가 서있고 그 左右에는 石碑 三基가 있다.



〔北鎮廟〕圖

北鎮廟는 醫巫閭山의 山神廟라 한다. 畫面을 살펴보면 中央의 高原위에 俯瞰法에 依해 鳥瞰圖的 表現으로 繪圖하고 있는 바 그 規模가 宏大하고 壯麗하다. 畫面下에는 牌樓가 보이며 그 兩側에 石獅子 二雙을 設하고 있으며 階上의 門 左右에는 鍾樓와 鼓樓가 있고 門前에는 몇 그루의 青松이 늘어 있으며 石路를 따라가면 數基의 石碑가 서 있고 그 위에 正殿이 있으며 殿 兩傍及 前階 三面에 모두 石梯를 設하고 있는 바 이는 稼齋와 湛軒 等の 記錄과 符合하는 것이다.

〔桃花洞〕圖 (寫眞上)

本 畫帖中 가장 風景畫的인 性格을 띄우고 있는 畫面이다. 後面에는 醫巫閭山의 大麓이 둘러서 있어 處處에 小峯이 우뚝우뚝 솟아 있고 溪谷에는 맑은 물이 兩쪽으로 감돌아 흐르고 있다. 아득한 기슭에나 臺上 곳곳에 많은 建物들이 보이는 바 湛軒燕行雜記에 「北有清安寺 西有娘娘廟 東有觀音閣……云云」하는 것들이 바로 이 建物들로 推測된다. 畫面下에는 넓직한 磐石들이 보이고 松林이 鬱蒼하게 描寫되고 있어 畫面全體가 마치 아득한 仙景을 彷彿케 한다.

〔盤山〕圖

薊州의 盤山은 일찌기 京東第一의 名勝으로 손꼽는 바 峻削한 山중턱에는 寺刹과 寺塔이 보이며 山頂에도 石塔이 우뚝 솟아 있고 山下 右側에 建物들이 散在하는 바 이들은 湛軒燕行雜記(燕行錄選集 P. 三〇一—三〇二)에 보이는 中盤의 小林寺와 上盤의 高塔下盤의 行宮이라 생각된다.

〔撫寧縣〕圖

南北에는 松林 사이로 秀峯이 羅列하여 있고 東西로는 丘隴이 重複되어 그 안에 넓은 平野에는 버드나무가 늘어섰고 그 사이로 四角의 縣城이 보인다. 城의 四方에는 높은 門樓가 보이고 城內에는 市街가 秩序있게 자리잡고 이를 가로지른 十字路中에는 鍾樓로 보이는 樓閣이 높이 솟아 있다. 城밖에는 北으로 부터 江流(洋河)이 城을 휘감돌아 흐르고 멀리 東北으로는 아득히 마을들이 바라보여 「關內第一好風水」라는 記錄을

實感케 한다.

〔歐血臺〕圖

畫面 上部에 두 高山이 並列하여 兩峯이 마주보는 山頂에는 各各烽火臺로 보이는 石臺가 있는 바 이 山이 寧遠의 雞鳴山으로 생각되며 이 石臺가 歐血臺가 아닌가 보여진다. 山下에는 넓게 트인 平野가 展開되고 곳곳에 버드나무가 우거져 있고 그 사이로 左隅에 門樓와 鍾樓가 솟아 있는 市街가 보이고 있다.

〔薊門煙樹〕圖

薊門煙樹는 今日의 德勝門밖 土城關地方에 있어 일찌기 太掖清波、玉泉垂虹、西山霽雪、金臺石照、居庸疊翠、瓊島春雲、蘆溝曉月과 더불어 燕京八景으로 손꼽던 絶景이다. 畫面을 살펴보면 左下에 門樓와 市街의 一部가 보이고 그 위에 타터진 畫面에는 아득히 나무들이 숲을 이루어 眺望케 늘어섰고 틈틈이 小屋들이 엿보이는 멋스러운 構圖를 보이고 있어 薊門煙樹의 風情을 「海水를 彷彿케 한다」고 記錄한 稼齋의 當時의 心情을 읽을 수 있을 것 같다.

〔極樂世界〕圖

이 畫面은 그 壯麗하고 絶妙한 품이 어느 宮闕이나 大刹의 一部로 보여지는 바 四面의 門前에는 牌樓를 세우고 四隅에는 小閣을 두고 太液池라고 생각되는 湖岸에 面하여 四方에 石橋와 欄干을 設하고 中央에 大殿을 臺上에 두고 殿屋上에는 大金頂을 올려 놓았다. 周圍의 언덕에는 花木이 茂盛하다.

〔太學〕圖 (寫眞下)

本 畫帖中 가장 平面的인 構圖로서 周圍의 風物은 完全히 省略한 一種의 配置圖的인 性格을 띄운 畫面이다.

畫面을 살펴보면 아래쪽의 正門앞에 照壁을, 그리고 左右에는 牌樓를 세우고 있으며 正門 左右 南側牆下에는 各各 二十三碑가 있고 北側牆下에도 亦是 많은 石碑가 서있는 바 其中 兩便의 大碑에는 閣을 設하고 있다. 正門 뒤에는 月臺위에 中門이 보이는 바 그 制度가 자못 壯麗하다. 또한 그 뒤에는 正殿이 있어 欄干과 月臺를 갖추고 있다. 臺下 左右에

는 樹木과 碑閣이 늘어섰는 바이는 湛軒의 記錄과 一致하는 것으로 正門은 櫺星門、中門은 大成門이라 하고 正殿의 欄干은 白石이며 月臺는 花文으로 裝飾하고 있었다하나 本圖에서는 識別이 不可能하다.

〔五龍亭〕圖

畫面아래에는 水中에 各各 陸地와 連結되어 있는 다섯 亭子가 나란히 서있는 바이는 湛軒燕行雜記에 보면 「太液池中亭有五曰五龍亭 中龍亭 左澄祥滋香 右湧瑞浮翠 萬曆中所命也」라 하였으니 이는 畫面과 相合한 다 하겠다. 물진너에는 帆船 몇隻이 대어 있는 一島가 있는데 이亦是 陸地와 石橋로 이어져 있고 頂上에는 石塔이 보이는바 稼齋燕行日記에 「……其南有一島上堅石塔……下圓而上爲八面 繚以石欄 石色白遠望如玉 上加金頂 繚以鐵鎖……云云」이라 說明하고 있는바 그 形容이 매우 恰似하다. 또한 周圍 處處에는 太掖清波 瓊島春雲의 絕景이 描寫되고 있는 바이는 앞서 說明한 薊門煙樹와 더불어 燕京의 八大絕景으로 불리우고 있다.

〔海淀〕圖

海淀은 京師西北에 位置하며 淸暢春 圓明頤和의 三園이 있고 海甸이라고도 稱한다고 한다. 畫面을 보면 水中의 二島 위에 臺를 築造하고 이들을 各各 石橋로 連結하고 있고 島上에는 各各 三層의 樓閣을 設하고 있으며 臺의 四方에는 石階를 놓고 있다. 對岸에는 帆船 다섯隻이 閑寂하게 浮遊하고 있다. 岸邊을 따라 高臺 牌樓가 즐지어섰으며 이를 둘러선 山上에는 處處에 數 많은 高塔 樓臺가 솟아 있어 千門萬戶의 壯觀을 이룬다. 아래쪽으로 길게 뻗힌 石橋앞에는 小亭이 보이며 그 옆에 石羊 一頭가 天然스럽게 누워있는 모습이 재치 있게 表現되고 있어 印象의 이다.

〔西域鞞韞〕圖

네개의 기둥을 높이 세우고 그 사이사이를 세개의 막대기로 各各 가로 지르고 그 위에 네쌍의 긴 장대를 橫으로 그 가운데를 걸쳐서 마치 只승의 시—소(See Saw)처럼 장대 兩끝에 디딤대와 손잡이를 만들어 달아 줄기는 모양인 바 그림에는 모두 七人이 天真스럽게 놀고 있는 모습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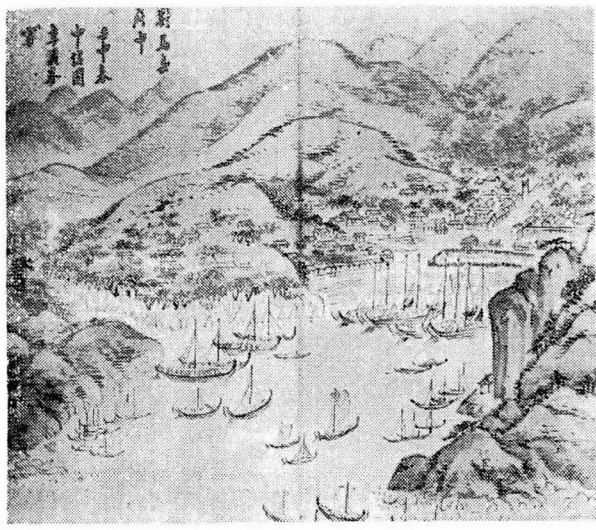
을 그려 보이고 있다. 畫面上的 構造로는 그 運用이 多少 疑訝한 點이 없지 않으나 民俗의 인 資料로 매우 재미있는 그림이라 하겠다. 右側에 보이는 큰 規模의 建物は 本「鞞韞」圖와는 無關한 것으로 보인다.

〔回國使臣〕圖、〔暹羅國使臣〕圖

畫面 左右에 各各 兩國의 使臣 四人이 一人은 正面으로 다른 一人은 側面으로 서서 옆모습(Profile)을 보이며 서로 마주 보고 있는 바 이는 外國人의 特徵을 여러 角度에서 仔細히 描寫、表現코자 하는 配慮인 듯하다. 帽子는 自國固有의 것을 쓰고 있으나 옷은 胡服으로 보이며 옷깃과 소매에 털을 달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들은 바로 賀正使나 冬至使行으로 入京한 使臣들로 推測되며 코, 눈과 얼굴輪廓을 異國의 人 表情으로 애써 그려 보이고 있어 興味롭다.

〔對馬島水程〕圖、〔佐濱浦〕圖、〔西泊浦〕圖、〔對馬島府中〕圖

앞서 說明한 一聯의 中國의 風物과는 畫面的 氛圍氣와 그 技法에 多少 差異가 엿보인다. 前者보다 濃墨으로 山勢의 表現은 米法으로 조금 무겁게 다루고 있다. 以上の 네 畫面은 거의 비슷한 構圖와 技法으로 海岸의 風景과 無數한 船舶을 繪하고 있는바 海邊에 보이는 建物들의 形勢으로 日本固有의 形式으로 表現되고 있는 것이 印象의 이다.



以上 위에 紹介한 各名勝 遺蹟 등의 序列은 本畫帖의 畫面의 順序인 바 우리나라를 出發하여 燕京에 이르는 등안의 路程을 地圖上에서 이들의 地名 及 所在地와 比較해 보면 그 順序는 鳳凰山 白塔 北鎮廟 桃花洞 塔山 威遠臺 祖大壽牌樓 歐血臺 姜女廟 山海關 望海亭 撫寧縣 夷齋廟 盤山 薊門 煙樹 太學 五龍亭 海亭 等的 序順으로 配列됨이 마땅한 바 本畫帖의 그것과는 많은 異差를 보인다. 따라서 設令 歸路時 寫生, 插入하여 作畫順으로 羅列한 것이 아닌가도 생각되나 地圖上에 보이는 路程으로는 그 또한 不可能한 만큼 이는 本畫帖이 日程이나 路程에 얽매이지 않고 自由롭게 作家의 嗜好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면 後에 이 畫帖을 다시 꾸밀때 그 配列이 뒤바뀐 것이 아닐까도 생각된다. 또한 年代로 보아 앞서야 할(註2 參照) 對馬島 等處의 畫幅이 末尾로 둘러진 것은 當時의 思想的 背景이나 畫幅數의 多少에 依하여 應當 對馬島篇은 後尾로 돌린 것으로 憶測된다.

以上 畫帖 全面을 通해 볼때 大抵, 「鳳凰山」圖 「塔山」圖 「桃花洞」圖 「薊門煙樹」圖 「對馬島」圖 等的 比較的 自由스러운 風景畫의인 性格의 畫面과 「北鎮廟」圖 「夷齋廟」圖 「太學」圖 等的 建物爲主의 平面的이고 圖解의인 性格의 畫面으로 二大別할 수 있으니 前者는 奔放한 寫實에 바탕을 둔 流麗하고 漂逸한 意志가 內在된 技法이라 하면 後者는 圖式에 가까운 平面的인 構圖와 主된 描寫 對象을 爲한 誇張 乃至는 大膽한 省略 등을 보여 前者와는 달리 多分히 抽象의이고 觀念의인 特性을 보이는 技法이라 하겠다. 그러나 風景畫의인 畫面에도 記錄寫生이란 點을 恒常 念頭에 두어 地形 山勢 水勢 方位 主要 建物의 描寫 相互의 距離 등이 자못 正確하고 觀點을 設定 亦是 많은 配慮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또한 畫中에 人物은 거의 設定치 않은 것은 더욱 記錄畫의 特性을 보이는 것이라 하겠다. 한편 圖解의인 平面的 畫面 亦是 寫實의인 面을 전혀 無視하지는 않고 있으니 卽 描寫 對象 自體가 비록 俯瞰法에 依해 平面的인 技法으로 다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들 周圍의 環境은 多分히 寫實의이고 立體的인 雰圍氣를 피하여 兩者間의 妙한 調和를 造成시키고 있으며 또한 畫面을 多分히 界畫의인 性格으로 다루고 있으나 界尺을 거의 使用

치 않고 熟練된 線描를 驅使한 點等은 前記한 두 判異한 性格의 畫面인 畫帖속에 調和되어 어색하지 않게 共存할 수 있는 바로 그 點인 것이다.

끝으로 全體的인 構圖面에서 살펴보면 主로 水平法 垂直平行法 等에 依한 構圖로서 畫面 中央을 中心으로 한 安易하고 羅列의인 配布가 그 大部分임이 좀 아쉬운 點이라 하겠으나 이는 記錄寫生이란 點에서 거의 不可避하였으리라 짐작된다.

註

① 畫員副司果許傲……(稼齋燕行日記)  
畫員折衝李必成……(湛軒燕行雜記)

畫員副司果崔垣……(燕轅直指)

② 李義養이 英祖四十四年戊子(一七六八A, D)生이므로 畫帖末尾 「對馬島府中」圖 上左隅에 「壬申春……」의 壬申은 純祖十二年(一八一二A, D)에 該當한다 하겠다. 그런데 當該 壬申年에는 日本의 通信使行이 없었으니 上記 落款은 寫生當時의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따라서 本「壬申」의 落款은 信園이 燕行使와 通信

使에 隨行하여 얻은 作品들을 整理하여 本 畫帖을 꾸밀때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렇다면 本 畫帖에 收錄된 燕行 및 通信使行의 記錄畫들은 적어도 壬申 以前에 이루어졌어야 할 터인데 信園이 게으르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바로 前年인 辛未 通信使行(朝鮮史 第六編 第一卷 P. 三六六 五月二十二日)己亥條에 隨行하였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또한 燕行使에 隨行한 것도 當年인 壬申年의 賀正使나 前年의 冬至使가 아닌가 생각된다.

③ 燕行錄選集 上卷 五, 湛軒(洪大容) 燕行記(大東文化研究院發行) 參照

④ 稼齋燕行錄(朝鮮古書刊行會發行) 參照